

9 월

폰티아낙 기도편지 (39 번째)

CONTACT

이메일:

0212bae@hanmail.net

연락처:

070-4843-9485

후원계좌 (예금주: 배성현):

국민은행 048401-04-128048

우체국 013052-02-169596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폰티아낙 이야기

긴 연무의 늪을 빠져나오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건기를 지나며 폰티아낙을 뒤덮은 연무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건기의 막바지인 9월에 접어들자, 이곳 팔리만탄섬(보르네오섬)은 팜농장 개간을 위해 저지른 방화로 인한 연기가 온 섬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9월초부터 2주에 걸쳐 초중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연무로 인한 호흡기 환자들이 병원마다 가득찼습니다. 온 집안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차서 저희 가족도 두통과 매스꺼움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저희는 이곳의 상황을 전하며 교회와 후원자분들에게 긴급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인 9월 22일 새벽!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억수로 퍼붓던 빗소리에 갠 후 감격에 겨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지만, 올 해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우려하며 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화재 범위(제주도 2배 면적)가 워낙 넓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직 빗줄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이곳 폰티아낙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답니다.^.^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월

폰티아낙 기도편지 (39 번째)

CONTACT

이메일:

0212bae@hanmail.net

연락처:

070-4843-9485

후원계좌 (예금주: 배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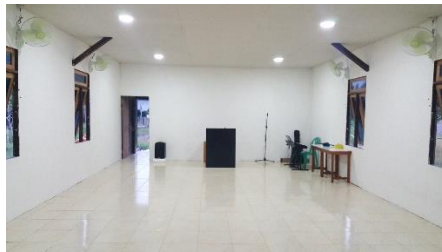
국민은행 048401-04-128048

우체국 013052-02-169596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폰티아낙 이야기

칼리마스에 예배당이 완공되다



지난 3월 중순에 첫 삽을 떴던 칼리마스교회 예배당 공사는 6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9월 15일 주일 저녁에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교회 명패 설치 및 페인트 작업 일부가 남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에, 헌당예배 이후 새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간 허름한 빈 집을 옮겨다니며 예배드리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던 어려운 고비들을 곁에서 함께 지켜 보 왔기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 왔던 지난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자, 제 가슴에도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칼리마스 예배당 부지 구입과 건축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후원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파송교회인 불광동성서침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수고와 희생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 월

폰티아낙 기도편지 (39 번째)

CONTACT

이메일:

0212bae@hanmail.net

연락처:

070-4843-9485

후원계좌 (예금주: 배성현):

국민은행 048401-04-128048

우체국 013052-02-169596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폰티아낙 이야기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 * 깔리마스교회 예배당이 지역복음화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영혼이 계속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사역의 구체화와 이를 위한 필요(부지구입과 건축 또는 주택매입)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 임마누엘교회 사역을 위한 목회자가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가족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 지난 달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 나서 현지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수리 기사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역과 비자 관련 중요한 자료들, 그리고 모든 사진 자료들이 들어있어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봤지만 이곳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 복구 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한 번 보내보라고 하네요. 감사하게도 며칠 후에 2 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편으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수리가 잘 되고 데이터가 잘 복구되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편지 양식이 바뀌고 기도편지가 늦어진 점 양해해 주세요^^)

2019 년 9 월 30 일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가족 올림

